

## (사)한국조경학회 제27대 회장 선거 입후보자 이력서

1. 인적 사항				
성명	한글	배 정 한		
	한자	裴 廷 漢		
생년월일	1968. 9. 10.	입회년도	1991	
2. 소속 및 직위				
소 속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조경학전공	직 위	교 수	
3. 학력 사항				
1998. 8.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박사			
1993.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석사			
1991. 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학과 학사			
4. 주요 경력 사항				
2007~현재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조경학전공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2~2007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2017~2018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조경학과	방문교수		
2014~현재	월간 「환경과조경」	편집주간		
2000~2001	펜실베이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디자인대학원 조경학과	박사후연구원		
1998~2005	서울대, 서울시립대, 단국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강사		
1998~1999	일건 C&C 건축사사무소	조경디자이너		
5. 주요 활동 사항				
2023~현재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		
2021~2022	한국조경학회	학술부회장, 부편집위원장		
2003~2020	한국조경학회	이사, 집행이사, 상임이사, 편집위원		
2021~2022	제58차 세계조경가협회(IFLA) 광주 총회 조직위원회	학술위원장		
2014~2017	용산공원조성추진협의회	의장		
2013~현재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상임이사		
2004~2007	(대통령 직속)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특별위원		
1998~현재	조경비평 봄	동인		
주요 저서	『공원의 위로』, 『조경의 시대, 조경을 넘어』,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경관이 만드는 도시』, 『라지 파크』, 『한국 조경 50년을 읽는 열다섯 가지 시선』 외 20권			

# 한국 조경학과 조경교육의 다음 50년을 설계합니다

## 출마 소견서

1987년 조경학과에 입학한 저는 1991년부터 한국조경학회 회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지난 33년의 시간, 한국조경학회는 제 학문적 성장의 든든한 터전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한국조경학회지』에 게재된 40여 편의 논문을 토대로 조경 이론과 역사, 조경 미학과 비평을 중심으로 한 학문적 지형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학회 활동을 통해 만난 여러 선생님, 선후배님들과 토론하고 협력하며 조경의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학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보직을 맡아 봉사해왔습니다. 이사(2007~2010년), 상임이사(2013~2020년), 집행이사(2003~2006년, 2011~2012년), 편집위원과 부편집위원장(2005~2006년, 2017~2018년, 2021~2022년), 학술부회장과 광주 IFLA 조직위 학술위원장(2021년~2022년)으로 활동했으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조경학회의 구성원으로서 환경조경발전재단 설립 실무, 환경조경대전 기획과 진행, 여름조경디자인캠프 운영, 한국조경현장 제정과 개정 등에 참여할 기회가 제게 주어졌던 점을 늘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의 연구 책임을 맡아 조경의 사회적 사명을 실천하고, 『한국 조경 50년을 읽는 열다섯 가지 시선』(한숲, 2023)의 편집위원장을 맡아 한국 현대 조경 50년사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학회의 발전 좌표와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제27대 한국조경학회 회장(임기 2025~26년)에 출마하며 저는 “**한국 조경학과 조경교육의 다음 50년을 설계한다**”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지난 50년간 선배들이 쏟아부은 열정과 노력을 자양분 삼아 다음 50년의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는 일에 주력하겠습니다.

네 가지 주요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 1 조경교육의 현재를 돌보고 미래를 가꾸겠습니다.

조경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조경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학문분과이자 전문직능인 조경(학) ‘전문 교육’의 목표, 체계, 내용을 재정립하는 힘쓰겠습니다. 전문 교육, 학위, 면허로 이어지는 연속적 시스템과 제도를 준비하겠습니다.

- 전국 대학 조경교육 현황 조사와 분석, 해외 사례 연구
- (가칭) ‘조경학 교육인증제 준비위원회’ 운영과 의견 수렴
- 한국조경협회, 한국조경가협회 등이 추진하는 (가칭) ‘조경사’ 자격/면허제 지원

## 2 조경 지식과 이론을 생산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기성 학자는 물론 미래 세대와 함께 동시대 사회와 문화에 던져진 공간·환경 의제에 응답할 조경 지식과 이론의 방향을 찾아가겠습니다.

- 매월 1회 온/오프라인 'LA 포럼'(학술 세미나, 근작 강연, 이론/실무 워크숍 등) 개최
- 기후변화, 회복탄력성, 인류세와 비인간, 공간정의, 공원혁신, 국가도시공원, 국토경관, 도시경관재생, 정원도시 등 당면 의제를 다루는 다수의 연구위원회 운영과 성과 공유
- 지역/지회 학술 행사와 작품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미래 세대 조경 연구자 지원과 '신진 연구자 네트워크(YRN)' 조직
- 해외 한국계 조경가/학자와 협력, 국제 조경학/협회(IFLA, CELA, ECLAS 등)와 교류 확대

## 3 한국 조경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와 경관을 둘러싼 글로벌 이슈를 조경(학)의 시선으로 대면하고 한국 조경의 다음 50년을 설계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지난 50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일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하겠습니다.

- 작품, 교육, 연구 성과, 인물 등 방대한 자료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 정리, 공유하는 장기 아카이브 프로젝트 착수
- 1세대 조경가와 조경학자 구술 기록 시리즈 기획
- 조경 매체, 관련 조경 기관·단체와 아카이브 협력 체계 구축

## 4 즐거운 참여와 열린 소통을 위해 학회 행정 시스템을 다듬겠습니다.

전국의 회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술 행사와 연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 운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가겠습니다.

- 부회장단 중심의 고정된 집행부 조직을 사안별로 대처하는 유연한 위원회 조직으로 전환
-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 학회지 논문 투고 확대와 질적 발전을 위한 심사 체계 개선
- 쉽게 모여 교류할 수 있는 곳으로 학회 사무실 이전 추진 및 타 기관과 공유 모색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한분 한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성실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학회를 넘어 업계, 시민사회, 언론, 정부·지자체,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체와 연대하겠습니다.